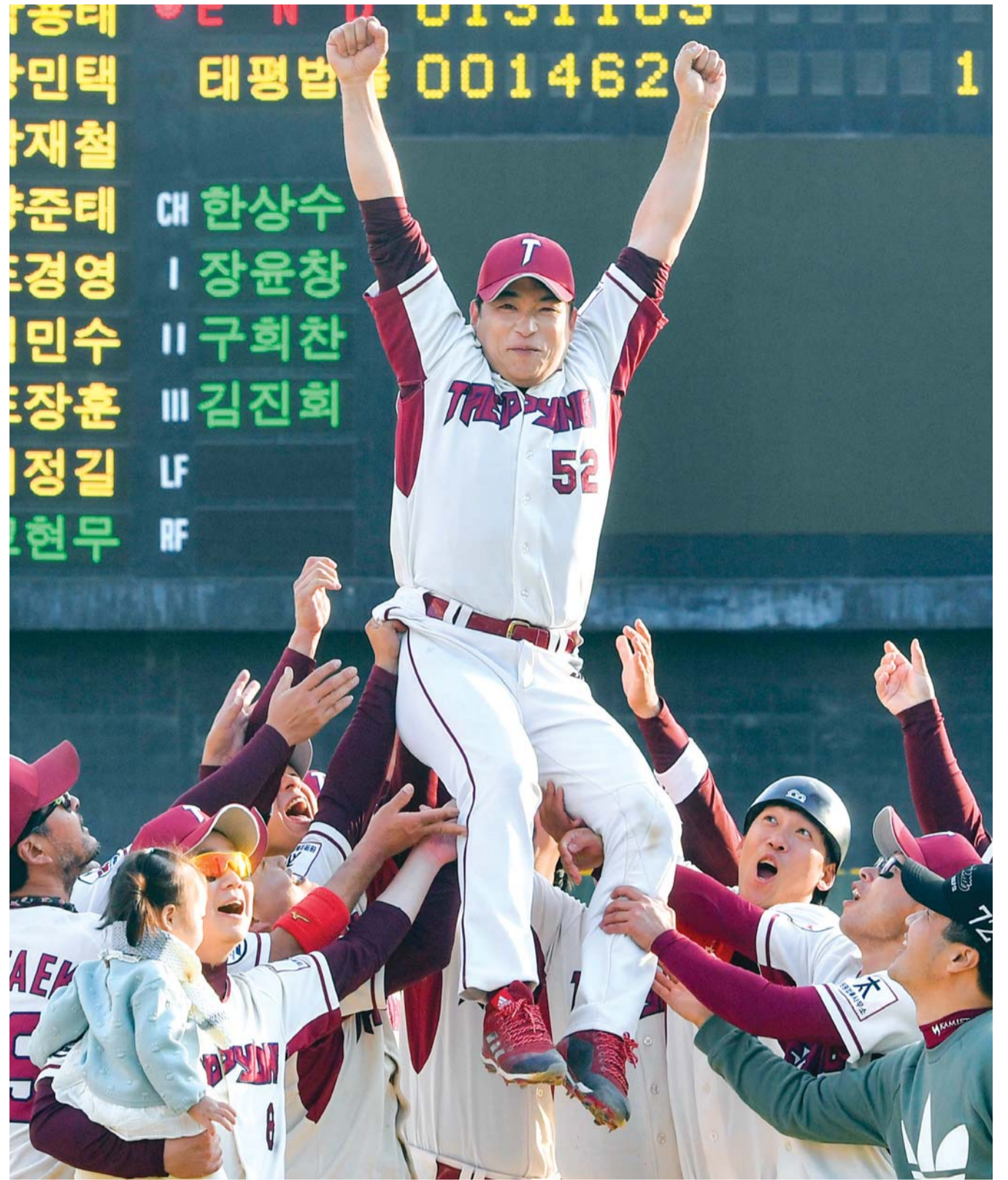


파트너스·태평법률사무소 “우리가 사회인 야구 최강”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사회인 야구 광일리그에서 우승한 파트너스가 김창근 감독을 행거에 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태평법률사무소가 양준태 감독을 행거에 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일리그 파트너스 막강 화력, 카이로스에 18-5 대승 무등리그 태평법률사무소, END 13-9 꺾고 감격 우승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가 파트너스와 태평법률사무소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27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을 끝으로 두 달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1일 합평 야구장에서 시작된 대회의 마지막 무대는 광일리그의 카이로스, 파트너스 그리고 무등리그의 태평법률사무소, END가 장식했다. 광일리그 결승전에서는 파트너스가 막강 화력을 뽐내며 카이로스를 18-5로 꺾고, 승자가 됐다. 파트너스가 1회초 볼넷 두 개로 기회를 잡았고 서제형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3점을 뽑았다. 선발 이영준이 1회말을 삼자범퇴로 처리한 뒤 2회초에 다시 파트너스 방망이가 움직였다. 중견수키 넘는 국범석의 3루타와 3루선상을 빠져나가는 김길오의 안타 등으로 6-0까지 달아났다. 6-1로 앞선 3회말 파트너스의 배터리 호흡이 맞지 않아 폭투, 패스트볼이 이어지면서 6-4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만 4회초 파트너스가 흐름을 기울이는 공세를 펼쳤다. 김길오의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이영준의 타구가 좌익수를 킴 넘겼고, 이만욱은 좌측선상을 타고 흐르는 적시타를 날렸다. 한 번에 6점을 뽑아낸 파트너스는 5회에도 5점을 보태면서 18-5 대승을 기록했다. 무등리그에서는 태평법률사무소가 END를 13-9로 꺾으면서, 3년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초반 분위기는 END가 주도했다. 1회가 빠르게 지나간 뒤 END가 두 번째 공격에서 먼저 점수를 만들었다. 2회초 1사에서 뜬에 맞는 볼로 출루한 김현무가 2루로 향했고, 국민의 적시타 때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에도 박종환의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시작으로 국준과 김년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END가 3점을 보탤다. 하지만 3회말 1사 3루에서 방민택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격한 태평법률사무소가 1-5로 뒤진 4회 조장훈의 희생플라이를 시작으로 상대의 포구 실책과 폭투 등을 묶어 공세를 펼쳤다. 1사 1-2루에서 박경민의 안타로 3-5로 추격했고, 박용태의 적시타로 5-5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5회초 2사에서 5-6 역전을 허용했지만 5회말 2사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END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범타로 아웃카운트 두 개가 빠르게 지워졌지만 태평법률사무소가 볼넷 2개와 안타로 만루를 채웠고, 3루 내야안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방민택의 우전 적시타로 8-6. 이어 박재철의 타구가 중견수 뒤로 빠지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그리고 타자주자 박재철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승패를 가르는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결승전 시상식에서 "광일-무등리그 32개팀 600명이 참가해 두 달 동안 멋진 승부를 펼쳤다"며 "내년 이번 대회 10주년이 된다. 내실을 기해 더 성대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주관, 전남도체육회가 후원했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일리그 결승전에서는 파트너스가 막강 화력을 뽐내며 카이로스를 18-5로 꺾고, 승자가 됐다. 파트너스가 1회초 볼넷 두 개로 기회를 잡았고 서제형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3점을 뽑았다. 선발 이영준이 1회말을 삼자범퇴로 처리한 뒤 2회초에 다시 파트너스 방망이가 움직였다. 중견수키 넘는 국범석의 3루타와 3루선상을 빠져나가는 김길오의 안타 등으로 6-0까지 달아났다. 6-1로 앞선 3회말 파트너스의 배터리 호흡이 맞지 않아 폭투, 패스트볼이 이어지면서 6-4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만 4회초 파트너스가 흐름을 기울이는 공세를 펼쳤다. 김길오의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이영준의 타구가 좌익수를 킴 넘겼고, 이만욱은 좌측선상을 타고 흐르는 적시타를 날렸다. 한 번에 6점을 뽑아낸 파트너스는 5회에도 5점을 보태면서 18-5 대승을 기록했다. 무등리그에서는 태평법률사무소가 END를 13-9로 꺾으면서, 3년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초반 분위기는 END가 주도했다. 1회가 빠르게 지나간 뒤 END가 두 번째 공격에서 먼저 점수를 만들었다. 2회초 1사에서 뜬에 맞는 볼로 출루한 김현무가 2루로 향했고, 국민의 적시타 때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에도 박종환의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시작으로 국준과 김년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END가 3점을 보탤다. 하지만 3회말 1사 3루에서 방민택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격한 태평법률사무소가 1-5로 뒤진 4회 조장훈의 희생플라이를 시작으로 상대의 포구 실책과 폭투 등을 묶어 공세를 펼쳤다. 1사 1-2루에서 박경민의 안타로 3-5로 추격했고, 박용태의 적시타로 5-5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5회초 2사에서 5-6 역전을 허용했지만 5회말 2사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END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범타로 아웃카운트 두 개가 빠르게 지워졌지만 태평법률사무소가 볼넷 2개와 안타로 만루를 채웠고, 3루 내야안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방민택의 우전 적시타로 8-6. 이어 박재철의 타구가 중견수 뒤로 빠지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그리고 타자주자 박재철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승패를 가르는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결승전 시상식에서 "광일-무등리그 32개팀 600명이 참가해 두 달 동안 멋진 승부를 펼쳤다"며 "내년 이번 대회 10주년이 된다. 내실을 기해 더 성대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주관, 전남도체육회가 후원했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일리그 결승전 전적
◆광일리그
파트너스 33 0 6 5 1 - 18
카이로스 0 1 3 0 1 0 - 5
▲승리투수 : 이영준
◆무등리그
END 0 1 3 1 1 0 3 - 9
태평법률사무소 0 0 1 4 6 2 - 13
▲승리투수 : 김현무 ▲홀런 : 박재철(5회 3점 그라운드 홈런·태평법률사무소)

광일리그 '파트너스' 우승팀 감독·최우수 선수 인터뷰 무등리그 '태평법률사무소'

“3전4기... 선수들 자랑스럽다” “우승하고 軍 복귀 기뻐”

김창근 파트너스 감독

'MVP' 투수 이영준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뜻깊은 우승입니다.” 제9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정상에 우뚝 선 파트너스 김창근(51) 감독은 “지난 2016년에 열린 제6회 대회부터 출전에 최고 기록이 준결승 진출이었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진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감독은 “평행한 승부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기 초반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승리 할 수 있었다”며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선보인 선수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9년 창단한 '파트너스'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가 서로 의기투합해 만든 10년 전통의 팀으로 지난해 열린 강진청자배 야구대회와 남해군수배 우승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 감독은 “소방공무원, 기자자동차 직원 등으로 이뤄진 선수들이 퇴근 후 담양에 있는 연습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런 노력 끝에 무등기 대회에서 우승 할 수 있었다”며 “내년 무등기대회에도 출전해 2연패를 노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우승하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상병’ 이영준(20)이 공-수에서 파트너스의 우승을 이끌며 광일리그 MVP에 선정됐다. 지난 1월 현역 입대한 이영준은 대회 준결승전에 맞춰 휴가를 나왔다. 앞선 준결승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이영준은 카이로스와 결승전도 7회까지 책임지면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영준은 “휴가와서 운동 잘하고 가는 것 같다. 동료들이 반겨줘서 즐겁고, 편하게 하고 복귀한다. 우승에 역할을 하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리틀 야구를 했던 그는 지난해에는 독립리그에도 도전하기도 했다. 국방의무를 위해 잠시 야구를 내려놓았지만 열정과 실력은 여전하다. 이영준은 “준결승전 전날 휴가를 나와서 다음 날 바로 경기를 뛰었다. 오랜만에 던졌는데 생각보다 공이 잘 날아갔다. 운동한 보람이 있었다”며 “시간 날 때마다 체력 단련과 러닝을 했다. 결승에서 아쉽게 펜스 앞에서 멈춘 공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준우승만 3년했던 설움 해소” “가족 응원이 우승 원동력”

양준태 태평법률사무소 감독

'MVP' 3루수 방민택

“4년을 기다린 우승,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태평법률사무소 양준태(39) 감독과 선수들은 앞선 3년 어렵게 무등기 정상을 밟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0-4의 승부를 뒤집고 13-9로 경기를 끝내면서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지난 2012년 제2회 대회에서 팔도잡오리라는 팀명으로 우승을 이룬 뒤 몇은 두 번째 우승 순간이기도 하다. 조반 상대 마운드에 밀려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을 때 빠르게 분위기를 바꾼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양 감독은 “상대 선발에 고전하면서 일찍 선수 교체를 했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했던 많은 경기 중 오늘이 최고였다고 말했다. 조직력으로 끈기 있게 플레이를 하면서 이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많은 이들이 고생했지만 특히 올 시즌에도 많은 이념을 소화해 준 김현무 투수에게 감사하다”며 “태평법률사무소가 매너는 물론 실력을 갖춘 팀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무등경기장에서 우승을 해서 시원 섭섭합니다.” 이날 열린 END와의 결승전에서 역전 적시타를 터뜨리는 등 해결사로 나선 '태평법률사무소' 3루수 방민택(47)이 무등리그 최우수 선수가 됐다. 몇년 수염이 트래이드 마크인 방씨는 “팀에서는 다른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지목받았는데 운 좋게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때마다 찾아온 구단주이자 변호사인 아내의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가족 응원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방씨는 “리그에선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최근 3년간 번번이 결승 문턱에서 매년 무너져 아쉬웠다. 이번엔 모든 선수가 땀 뚫 뭉쳐 정상에 오르게 돼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것 보다 기쁘다”며 “내년에도 무등기 대회에 참여해 대회 2연패를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경기장은 생활체육시설인 야외수영장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한 타임캡슐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